

해외 방문 및 체류자의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 행동 기법에 관한 연구

최진태

한국테러리움연구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완성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 중의 하나는 안전(safety)의 확보이다. 위협이나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폭력, 인적 재난 등은 평화롭고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1년 한국관광공사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1년 출국자 수가 1만 여명이었다. 이에 비해 1988년 해외 여행이 자유화된 이래 출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테러를 포함한 광범위한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출국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테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결코 아니다. 이에 따라 폭력과 테러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현안으로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방문 및 체류자들 스스로가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불가피하게 테러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테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행동 기법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의 지침이 될 것이다. 대테러 자가 위기관리 행동 기법의 전파를 위해서는 정부 혹은 대학,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대테러, 위기관리, 테러대응, 테러대응기법, 안전 대책

I. 서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완성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 중의 하나는 안전(safety)의 확보이다. 위협이나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폭력, 인적 재난 등은 평화롭고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는 구성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듯이 국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능력으로 모든 개인에 대한 완벽한 안전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테러조직은 전략적으로 강한 군대와 조직을 갖춘 사회 혹은 국가와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 시설물을 공격하거나, 기업 및 상업 시설을 공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죄 없는 시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만약 사회와 국가가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전은 확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이다". 테러 시대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그리고 테러범들이 그들이 선택한 공격 목표에 대한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테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2월 25일 현대 야구단 소속 선수들이 제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2차 훈련지인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호텔에서 짐 정리를 한 후 장비와 옷가지 등을 트럭에 옮기는 와중에 정적을 깨는 총성 수발이 갑자기 울렸다. 총소리의 근원지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한 주유소였다.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던 플로리다 주 경찰에게 현상수배범이 총격을 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총격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자신의 총을 꺼내 보복사격을 가했고 경찰에게 대든 이 수배범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현상 수배범의 총격전이 오가던 상황에서 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던 한국 선수들은 총이 발사되는 굉음과 함께 한 알의 총알이 짐을 실은 트럭 외부에 명중하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다. 이 순간 한국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호텔을 방문했던 서재웅 선수가 외쳤다. "모두 옆드려". 서재웅 선수가 '사인'을 보내자 나머지 선수들은 일제히 바닥으로 몸을 숙인 뒤 '낮은 보폭'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숙소로 내달렸고 아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재웅 선수의 "모두 옆드려!"라는 외침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한 현대 선수들의 행동은 총격전이 벌어지는 위기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생존 기법을 발휘한 것이었다. 서재웅 선수의 대응은 대테러 전문가에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다.

이 사건은 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없는 가슴 철렁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생존 기법 하나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현대 소속 선수들과 서재웅 선수 등이 혼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우왕좌왕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본 연구는 출국자 1천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해외 유학생, 해외 거주 교민, 분쟁지역에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 그리고 장단

기 해외에서 봉사하는 봉사단원,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등이 테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가 위기관리 행동 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상시 대테러 위기관리 기법

1. 상시 안전 대책의 필요성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완성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 중의 하나는 안전(safety)의 확보이다. 위협이나 위험에서 자유롭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 폭력, 인적 재난 등은 평화롭고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국제테러 발생현황(1960-2006)

연도	테러 건수	부상자	사망자
1960-1969	200	253	36
1970-1979	2,150	3,631	1,504
1980-1989	3,408	9,366	3,868
1990-1999	4,707	26,126	5,693
2000-2006	21,638	69,544	35,748
합계	32,103	108,920	46,849

'테러의 시대'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기업체의 임원, 근로자, 여행객, 유학생, 그리고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한국 교민 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에 대한 구분도 없으며, 지리적 제한도 없이 발생하는 테러 양상으로 <표 2>에서 보듯이 한국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표 2> 해외방문 및 체류자에 대한 주요 테러 일지(1997-2006)

일자	사건개요
1997.10.15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탄테러로 LG전선 직원 등 2명이 부상
1998.04.06	예멘 현대건설 이덴현장에서 지뢰형식 매설 수류탄 사전 적발
1998.08.26	그리스 아테네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소형 사제 시한폭탄이 폭발하여 유리창 등 건물 일부 파손
1999.02.03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히네스버그 주재 (주)대우 지역본부 사장이 현지 숙소 주차장 앞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
1999.08.11	일본 동경에서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1명이 동경 지역 앞에서 괴한이 쓴 권총에 맞아 사망

일자	사건개요
1999.10.31	필리핀 루손 섬에서 국도 확장공사 중이던 경남기업 현장 사무소가 「신인민군」의 습격을 받아 금품강탈 등 피해 발생
2001.01.16	인도네시아 '자유 파푸아 운동(OPM)이 이리안 자야 원목캠프에 근무하는 현지법인 코린도사 한국인 직원 2명 및 현지인 직원 11명 인질납치. OPM은 1.19 인질협상 차 방문한 코린도사 한국인 직원 1명과 현지인 2명을 추가로 억류
2003.11.30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주)오우 전기 근로자 4명이 후세인 잔당으로 추정되는 테러분자들에 의해 피격·사상
2004.05.31	이라크 주재 가니무역 직원 김선일이 저항세력에 피랍, 6.22 필루자 인근 도로변에서 참수된 시체로 발견
2005.02.11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유학생 3명이 귀가 도중 스킨헤드족에게 집단 공격을 받음
2005.10.01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식당가에서 1시간 사이에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함. 한국인 6명도 부상을 당함
2006.02.15	파키스탄 서북부 '피사와르' 지역에서 서방 언론의 「무함마드」 풍자만평에 불만을 품은 7만여 명의 시위대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운송업체 (주)삼미대우가 운영중인 버스터미널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 시위대 일부가 버스터미널에 불을 질러 터미널 건물과 주차되어 있던 삼미대우 소속 버스타량 17대, 승용차 3대, 미니밴 3대가 전소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현지인 직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음
2006.03.14	팔레스타인 한 호텔에서 KBS 특파원 1명 납치, 하루만에 무사히 석방
2006.06.06	현지시간 23:30경(한국시간 6.7 07:30)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해방운동'(MEND) 조직원 30여명이 니제르델타 「보니」 섬에서 석유 가스 플랜트 건설 중이던 아국 기업건설 현장을 습격, 우리 근로자 5명을 납치한 후 수감중인 지도자 「도쿠보 아사리」의 석방을 요구하다 6.8 16:20 (한국시간 6.9 00:20) 협상을 통해 전원 석방

자료: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2006).

테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신(神)도 불가능한 일이다. 테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대책을 숙지하는 것이다. 테러는 일반 범죄와 비교해 보면 자행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그 과급 효과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테러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범죄이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대책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와 의식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기본 안전 대책은 해외에서의 개인 혹은 가족들이 테러조직은 물론이고 일반 범죄자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줄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범죄 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2. 구체적인 행동기법

1)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상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한다.

2)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수상한 사람이 목격되거나, 이상한 검색 혹은 불길한 예감이 느껴지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3) 개인적인 활동 루트(routines)를 다양하게 한다. 예를 들면, 직장인은 출·퇴근 로(路)를 매번 동일하게 하지 말고, 하루는 A 코스, 다른 하루는 B 코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C 코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주부들이 쇼핑을 위해 외출을 할 때도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일상적인 활동 루트를 다양하게 함으로서 범죤자나 테러범에게 공격 시간과 공격 루트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항상 자신의 위치 혹은 귀가 예정 시간 등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는 습관을 가진다. 위기 시에 추적이 가능하고, 귀가 예정 시간을 넘기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5) 개인이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호텔 등에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되어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만나기로 한 혹은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

6) 항상 현지 전화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전화를 걸 때 필요한 동전이나 전화 카드를 소지한다. 그리고 경찰, 소방, 앰블런스, 그리고 병원 전화번호를 메모하여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7) 가장 가까운 경찰서, 군 경찰, 정부기관 혹은 대사관 등 위기 시에 피난처로 삼을 수 있거나 긴급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

8) 대중들과의 논쟁을 삼가고, 대적하는 것을 피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게 보고(신고)를 한다.

9) 가장 기본적인 현지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I need a policeman.),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Where is the hospital?) 도와주

세요?(Help me!) 등과 같은 표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10) 위험이 닥쳐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신호를 만들어서 숙지한다. 누군가 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문단속을 하게 하거나 혹은 위험을 관계 당국에게 알리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등의 수 신호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한다. 가족 구성원간의 신호는 절대로 외부인과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항상 혈액형이 표시되어 있는 신분증 혹은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을 영어 혹은 현지어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 기간 만큼 혹은 최소한 일주일 분량의 의약품을 소지하도록 한다.

12) 어떤 경우에도 현저하게 눈에 띄는 행동을 삼간다. 대중의 관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많은 현찰을 꺼내 보이는 등의 행동은 자신 스스로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를 유발하는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3) 어떤 경우에도 불(不)필요하게 자신의 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신상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14) 테러 공격에 대한 경고 혹은 대피 명령 등으로 현 지인들이 인근 지역 혹은 원거리로 대피하는 일이 있는 지를 유심히 살펴 참고하도록 한다.

15) 납치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자의 대비 계획 및 행동 요령을 익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납치되어 분초를 다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현지 관계 당국에게 연락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인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본국의 가족에게는 누가 알릴 것인지 등 각자의 책임을 나누어 둬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6) 민감한 아이tem 혹은 당혹스러움을 유발하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서적을 가지고 다니거나, 도색 잡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도색 잡지는 매우 불경스러운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7) 현지인의 감정을 폭발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간다. 특정 국가에서, 특히 국왕의 사진이 화폐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화폐를 더럽히거나 접는 것이 국왕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어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III. 가정에서의 안전 대책

1. 가정 안전 대책의 필요성

가정은 개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휴식을 취하고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추구의 근원지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공간이 테러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테러의 그림자가 다가서지 않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숙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만으로도 테러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구체적인 행동기법

1) 집으로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경우 가지치기를 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이동이 가능한 대형 화분의 경우에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켜 놓는 것이 좋다.

2) 범죄자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문과 자물쇠를 설치한다.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출입문에도 방범용 문출입문을 외부에 따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3) 새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 시에 자물쇠를 반드시 교체하도록 한다. 과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분실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쇠를 단 하나라도 분실했을 경우에도 자물쇠를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출입통제 기술의 발전으로 최신식 기술이 적용된 넘버 키, 지문인식, 혹은 홍채 인식 도어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 열쇠를 자동차 시동키와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특히 자동차 시동키와 함께 묶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라도 자동차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가 방치된 채 시동

을 걸어 두는 경우 집 열쇠를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물쇠를 교체하는 불편은 물론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겪어야만 한다.

5) 야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명 장치를 하여 어두운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어둠을 이용해 은밀하게 침입하는 좀도둑들은 물론 테러범들은 야간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기계경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입 발생 시에 경비원들이나 치안 당국의 출동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6) 외출 시에 전등 혹은 음향기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한다. 비록 집이 비어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좀도둑 등의 침입 의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7) 출입문을 노크하는 방문자에 대해서 아무런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무심코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문을 열지 않고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신원 확인이 용이한 침담 회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8) 열쇠를 숨기거나, 열쇠를 어린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한다. 특히, 외출 시에 우유 배달통이나 출입문 근처에 놓여 있는 화분 등에 숨기는 경우는 범죄자나 테러범에게 열쇠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동 주택의 경우 우편물 수거함이나 전화 혹은 전기 배전함 속에 넣어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자동차는 가능한 한 길가에 주차하는 것을 삼간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주차 공간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실내 주차 공간 확보 공사를 하여 차를 주차하도록 한다. 폭탄 테러의 경우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에 외부인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10) 아이들이 집에 있을 경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에게 전화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는 지를 알려주도록 한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의 출동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전화번호, 도움 요청 사유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전화기 옆에 경찰서, 소방서 등 비상 전화 연락 번호를 기록하여

두고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에게 장난 전화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킨다.

11)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웃과 동떨어진 외진 지역이나 일방통행로가 있는 지역, 막다른 골목이 있는 지역,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12) 공동 주택의 경우 가급적 침입이 용이한 1층은 피하고, 비어 있는 집이 이웃에 있는 곳도 피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경우 1층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층 이상의 고층도 피하는 것이 좋다. 비상 시 탈출과 구출 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전화를 받을 때는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노출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삼간다. 예를 들면 수화기를 들자마자, “삼성동 홍길동입니다”라는 응대는 주소지와 신분을 노출하는 것으로 삼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도 가족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식의 응대가 좋은 방법이다.

14)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나 주소지 등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우편물 등을 절대로 휴지통에 버리지 않도록 한다. 가정용 파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15) 밤이 되면 창문의 커튼을 반드시 단도록 한다. 창문 용 커튼은 가급적 두꺼운 천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창문이나 발코니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하게 외부에 자신과 가족이 노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16) 어떠한 경우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배달 물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주문하지도 않은 피자가 배달되거나 꽃 등이 배달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보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IV. 여행 중의 안전 대책

1. 여행 중의 안전 대책 필요성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공무상의 해외 방문,

단순 여행목적의 해외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여행은 친숙한 곳으로의 여행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목적지가 초행인 곳이 많다. 여행 중에는 목적지가 어디이던지간에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매우 중요한 안전 대책을 숙지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정신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테러에 노출되지 않는 길이 된다.

2. 구체적인 기법

1) 여행 중에도 여행목적에 따라 숙소 출입 루트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한곳만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는 것은 쉽게 테러범 등의 공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숙소로의 이동로 상에서 의심스러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개인 운전 승용차 혹은 택시 등에서 내리기 전에 주위에 이상스러운 환경이나 수상한 사람들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자가용의 경우 차에 타기 전에 내부를 확인하고, 외부에 이상은 없는 지 트렁크 등의 침입 흔적은 없는 지, 이상한 물체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는 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운전 중에는 문을 반드시 잠그고, 창문은 열지 않도록 한다. 환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흥기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약간만 열어 두도록 하고, 환기를 하고 난 후에는 닫도록 한다.

4) 운전사를 포함하여 차량을 렌트할 경우 국제적으로 믿을 만한 업체, 현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5)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단독 여행 보다는 그룹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단순 범죄자의 경우 한 두 명이 그룹 여행객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직 열세를 무시하고 덤비는 어리석은 자는 별로 없다.

6) 교통량이 적은 도로는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외진 혹은 뒷골목 등 범죄 다발 지역이 근접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7)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도로 갓길을 피해 안전한 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경

우 유료일지라도 이곳을 이용한다. 주차하고 다른 일을 보기 위해 차를 떠날 때는 반드시 차를 잠그도록 한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같은 회사의 택시나 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택시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맨 앞에서 기다리는 택시를 타지 않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째에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이용한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경우 맨 앞쪽의 택시에서 범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호텔에서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호텔에서 추천하는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다.

9) 만약 감시를 당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망설임 없이 경찰서 혹은 소방서 등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본능에 충실하도록 하라.

10) 운전 중에 차량 고장으로 멈춰 설 경우에는 사고 표지판 혹은 도움 요청 표지판을 차량 뒤에 세우고 차량 밖에서 있지 말고, 차 내부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다리도록 한다. 누군가가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 경찰에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명심하도록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로밍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현지 휴대폰을 소지하여 비상시에 아국 대사관, 한인협회 등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1)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 편승 여행자(hitchhiker)를 자신의 차에 태우지 않아야 한다. 특히 2인조의 경우에는 더 더욱 그러하다. 자동차 편승 여행자로 위장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넓은 아량과 자비를 베풀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12) 야간 조명이 잘 갖추어진 도로를 이용하라. 조명이 없는 어두운 도로의 경우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범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3)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와 위험 상황에서 위험을 알리는 수(手) 신호를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신호는 운전자와 본인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노출해서는 안 된다.

14)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이용할 때는 운전자가 승차시에 문을 열도록 한다. 승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안에 없을 경우에는 차안에 승차하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가 나타날 때 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운전자를 남겨 놓고 일을 볼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5)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승차한 후 목적지를 알려주도록 한다.

16) 자가 차량의 경우 기름을 충분하게 채워두는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교통 혼잡 혹은 유사 시 범퇴자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출장 중에는 절대로 주유 신호등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V. 호텔에서의 안전 대책

1. 호텔 안전 대책의 필요성

가정이 아닌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호텔일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 보안 대책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설령 높은 수준의 안전 보안 대책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100%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가 완벽한 안전 대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구체적인 기법

1) 투숙한 호텔 방의 출입을 위한 열쇠는 항상 자신이 소유하도록 한다. 안내 데스크에 맡기는 것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2) 투숙한 호텔 주변 혹은 투숙한 방의 복도 등에서 배회하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경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필요할 경우 호텔의 데스크에 연락하여 보안 요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투숙한 방 번호를 노출해

서는 안 된다. 호텔 내에 있는 바(bar) 혹은 식당에서 타인에게 방 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방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서도 안 된다. 본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4) 호텔 방의 내부는 깨끗이 정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 외부 침입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도 항상 잘 정돈해 놓고,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개인 물품을 모두 챙겨 호텔 방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좋다.

5) 어떤 경우에도 외부인의 방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외부인과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이 아닌 호텔 부속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6) 호텔의 비상 출입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어야 한다.

7) 호텔 보안 요원의 근무 위치를 확인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유사시 잘 훈련된 혹은 무장하고 있는 호텔 보안요원에게 달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 교통수단 안전 대책

1. 교통수단 안전 대책의 필요성

해외방문 및 이동 등을 위해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교통수단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테러 사건의 경우 항공기 납치는 물론이고 자동차, 버스, 열차 그리고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9.11 미 테러, 3.11 스페인 열차테러, 그리고 7.7 런던 테러 등이다. 따라서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안전 대책의 확보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2. 지상 교통수단 안전 기법

1) 현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현지인들에게 일상적인 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부자로 보일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 패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출퇴근 경로, 출퇴근 수단은 범죄를 모의하는 자들에게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이용당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출퇴근 시간을 30분 앞으로 당기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함으로서 잠재적인 범인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3) 자신 소유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차량의 주위, 외부 그리고 내부 순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침입 흔적이 있거나, 차량 내부 배선 상의 이상이 보이거나, 전기선과 같은 것이 발견되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테러범의 경우 폭탄을 차량에 설치하여 엔진 시동과 동시에 폭발하도록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여행을 할 때는 혼자가 아닌 동행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호위(convoy)를 받아라.

5) 출장, 여행, 출퇴근 등의 운전 경로 상에 경찰서, 소방서 등과 같은 안전한 대피소(safe haven)의 위치를 파악하라. 유사시에 공격을 시도하는 범죄자들을 피해 단 시간에 이동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6) 항상 차량 키 관리를 철저히 하라. 만약 차량의 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비상용 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어들 등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7) 차량의 운전사를 고용하는 경우 신분을 철저히 파악한 후 고용한다.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범죄 기록 유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잘 알고 지내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고용된 운전사에게는 사전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시동을 걸기 전에 확인할 사항, 운전 중에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지 말 것, 차량을 방지하지 말 것, 인근 경찰서 등 안전 대피소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것이 좋다.

9) 항상 차의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특히 야간에 잠금 장치의 확인은 필수 사항임을 명심하고, 개인 주택의 차고에 차량을 주차할 때도 차량의 자금 장치는 물론이고 차고의 출입문을 잠근다.

10) 불가피하게 차고 아닌 노변에 주차할 경우 조명이 있는 곳에 주차하도록 한다. 어둠이 범죄 촉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한다.

11)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량 문은 잠그도록 하며, 창문은 환기를 위한 최소 상태를 제외하고는 열지 않도록 한다.

12) 항상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운전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유형 등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 방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집으로 가지 말고, 경찰서 등과 같은 안전한 대피 장소로 운전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항공 교통 이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1) 대형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 정비 불량 등으로 지연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 항공기 납치 등의 사고에 연루된 항공사 소속의 여객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항공기는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테러조직이 선호하는 공격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국적기로 인정되는 항공사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테러조직의 빈번한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국가의 항공사 이용은 신중하게 하도록 한다.

2) 항공기 안전 운행에 위험이 높은 지역을 비행하는 경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직항로는 피하고 경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동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 티켓, 수화물, 기내용 가방 등 여행 관련 서류와 물품에 어떠한 경우라도 계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가 항공기 납치 등 항공기 테러에 노출될 경우 살해될 위험성이 일반인들도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표 3> 대표적인 신분 노출 사례

표기 사례	이유
대령 김 00	고급 장교라는 사실을 노출
시장 박 00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을 노출
경감 최 00	경찰 간부라는 사실을 노출

4) 항공기 좌석 배치 시에 내측 좌석(aisle seat)보다는 창측 좌석(window seat)을 요청한다. 창측 좌석이 내측 좌석보다 항공기 납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더 안전하

고, 테러범들과 접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내 중간 부분에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납치 사건 등이 발생하면, 테러범들은 맨 앞쪽 혹은 맨 뒤쪽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테러범들도 승객들의 대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중간 부분에 위치할 경우 전후좌우를 모두 경계해야함으로 기피하는 것이 정석이다.

5) 항공기 탑승 중에 승객과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대화는 절대로 삼간다.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에도 직업 등을 물으면, 지영업자(sole owner) 등으로 대답하는 것이 이상적인 응대 방법이다. 초면인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명함 등을 교환하는 것은 삼간다.

6)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일반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등으로 분류된다. 관용여권은 일반인과 다른 신분의 소유자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폭동, 테러 등 위난 상황 발생 가능 지역을 여행할 때는 일반여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용여권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가서, 관용여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관용여권의 보관은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항공기 납치 위험 상황 직면 시에는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일반여권을 제시하도록 한다. 만약 특정인이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그 사람은 인질로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일반여권 소지자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7) 사관학교 졸업생, 군 간부 등은 특수한 반지 등을 기념으로 마련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신분을 노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에는 착용하지 말고, 집 반지 보관함에 두고 여행을 떠나야 한다.

8) 항상 복장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입을 평상복을 입는 것이 좋다. 특히, 군인, 경찰 등은 일반인들과 다른 유니폼을 입는다. 따라서 그들의 복장은 곧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 된다. 따라서 여행 중일 때는 특수한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을 삼가도록 한다. 아울러, 군인이나 경찰을 의미하는 기장(badge),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하는 것이 좋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특정 국가를 나타내는 로고 등이 새겨져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비속어, 특

정인을 비하하는 문구, 특정 종교 색채가 강한 문구 등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 등도 피한다.

9) 공항 도착 시간을 조정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대기 장소에서 의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가능하면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빨리 출국장으로 빠져 나가도록 한다.

VII. 결론

해외 방문을 위한 출국자 수가 2006년에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 여행객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유학생, 이민자, 그리고 현지 교민 등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테러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쇄적으로 3차레나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들 납치 사건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들이 테러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들이 테러에 노출되지 않고, 테러에 노출 되더라도 생존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위기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테러에 대한 위기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이고, 두 번째는 개인 차원의 위기관리이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위한 대테러 위기관리를 완벽하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해외 방문 및 체류자들 스스로 대테러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테러 위기관리는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개인들 스스로가 상시 안전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테러 위기관리의 출발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상시 안전 대책, 가정에서의 안전 대책,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테러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노출이 되더라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국가정보원. 2006. 테러로부터 안전한 해외생활. 서울: 테러정보통합센터.
- ▷ 국가정보원. 2006.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서울: 테러정보통합센터.
- ▷ 국가정보원. 2006. 테러범 식별 요령. 서울: 테러정보통합센터.
- ▷ 이형철 역음. 1995. 테러! 당신은 안전한가?. 서울: 세경자료사.
- ▷ 최진태·이영철. 2004. 폭탄테러 대응 매뉴얼. 서울: 한국테러리즘연구소.
- ▷ 최진태. 2004. 테러와 위험관리: 국제 테러의 발생현황과 추세. 위험관리. 96.
- ▷ 최진태. 2005. 테러의 시대, 한국은 안전한가!. 위험관리. 97: 40-45.
- ▷ 최진태. 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 최진태. 2006. 국제 테러조직의 현황. 전략 및 전술. 군사저널(1월호).
- ▷ Aviv, Juval. 2004. *Staying Safe*. New York: Harper Resource.
- ▷ Aviv, Juval. 2003. *The Complete Terrorism Survival Guide*. New York: Juris Publishing.
- ▷ Banlaoi, Rommel C. 2004. *War on Terrorism in Southeast Asia*. Manila: Rex Book Store.
- ▷ Buck, George. 2002. *Preparing for Terrorism: An Emergency Services Guide*. London: Delmar Publishers.
- ▷ Jin-Tai Choi. 1994. *Aviation Terrorism*. London: Macmillan.
- ▷ Gunaratna, Rohan(ed). 2004. *The Changing Face of Terrorism*. Singapore: Western Universities Press.
- ▷ Hoffman, Bruce. 2001. *All You Need Is Love: How the Terrorists Stopped Terrorism*. Atlantic Monthly(December).
- ▷ Tan, Andrew & Kumar Ramakrishna(eds). 2002. *The New Terrorism: Anatomy. Trends and Counter-Strategies*. Singapore: Western Universities Press.
- ▷ Taylor, Max, and John Horgan(ed). 2000. *The Future of Terrorism*. Portland: Frank Cass Publishers.
- ▷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2005. *A Military Guide to Terror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1994. *Security Guidelines for American Enterprises Abroad*. US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10213.
- ▷ US Joint Chiefs of Staff. 1998. *Joint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Anti-terrorism*. Joint Pub 3-07. 2.

큐리티(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 연구 분야는 대테러, 보안, 경호, 경비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Aviation Terrorism(1994),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1997),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2006), 그리고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2006) 등이 있다(jtchoi21@paran.com).

崔嶺泰: 1993년 영국 St. Andrews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논문: Acts of Violence against Civil Aviation: Historical Survey, Perspectives and Responses) 현재는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으로서 제직 중이다. 국가 대테러 협상전문위원, 군사저널 편집위원, C&S 시